



민낯 드러낸 박정찬 사장...고함에 조합원 폭행까지

박정찬 사장의 품성과 자질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장실로 못 들어가자 그는 고성을 지르고 조합원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25일 오전 본사 7층 사장실 앞에서 일어난 일이다.

연합뉴스 조합원은 이날 오전 8시30분 박 사장의 출근 저지를 위해 사장실 앞으로 하나둘 모였다. 멕시코시티 특파원인 양정우 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소환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였다.

전날 개인 사정상 오후 늦게 회사를 찾은 박 사장은 이날 기습적으로 출근시간을 앞당겼다.

그가 7층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전 8시40분쯤. 9시10분 내외의 평소 출근시간대에서 30분쯤 이른 시점이었다.

조합원들은 박 사장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대열을 가다듬고 '근조'가 쓰인 유인물을 들고서 스크림을 짰다. 박 사장은 "뭐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라며 대열 앞에 선 조합원의 팔을 풀며 사장실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박 사장은 "내 방에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이게 뭔 짓이야, 그만해!"라고 큰소리를 치고 스크림을 풀려고 깎지 낀 조합원의 팔뚝을 내리치거나 팔을 잡아당기며 물리력을 행사했다.

폭력을 쓰지 말아 달라는 조합원들의 요청에 박 사장은 "폭력, 이게 폭력이라고?"라고 되받아치며 수차례 조합원의 대열로 돌진했다.

공병설 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폭력을 쓰지 맙시다"



공 위원장과의 대화에서 양정우 조합원 인사와 노사간 협상간 상관없이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복성 인사조치를 한 것은 대화의 판을 깨트린 것이라는 사내비판을 애써 빚겨가며 짐짓 대화할 용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제스처를 취한 것.

공 위원장은 이에 중요한 국면에서 상황을 꼬이게 한 이번 징계성 인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사태 해결의 길로 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 사장은 두 시간 가까이 노조 사무실에 있다가 다시 7층 사장실로 향했다.

조합원들이 굳건하게 대열을 유지하고 있자 박 사장은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고!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냐"라며 성을 내고선 돌아섰다.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사장실 앞을 지킨 뒤 해산했다.

라며 박 사장의 도발에 비폭력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 전 조합원은 지난 3년간 업무 방해 당했습니다. 폭력을 당했습니다"라며 업무 방해를 운운하는 박 사장 측의 논리를 반박했다.

10여분간 몸싸움을 벌였던 박 사장은 노조의 강고한 대열을 뚫지 못하자 "노조 사무실로 내려가자"며 임원들과 함께 노조 사무실로 갔다.

박 사장 연임 저지와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를 위해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의 사무실을 투쟁의 대상자인 박 사장이 사실상 점거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박 사장은 노조 사무실에서 가진



박 사장, 앞으로론 대화 뒤론 '꼼수'

박정찬 사장은 겉으로 노조와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도 뒤로 파업 대오를 깨트리려고 갖은 술책을 쓰고 있다.

우선 뉴스Y로 파견된 이봉석 조합원의 인사조치가 그렇다. 박 사장은 지난 18일 이 조합원을 베이징 특파원으로 발령냈다.

파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난데없는 인사다. 기존 특파원의 귀임에 따른 교체 인력이 아닌 신규 TV 특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급한 인사소요가 아니다.

이 조합원의 인사는 파업에 참여중인 조합원 한명을 투쟁 대오에서 빼자는 차원만이 아니다. 파업 중에도 인사권을 행사해 자신이 엄연한 사장임을 조합원에게 각인시키려는 조치로밖에 읽힐 수 없다.

이봉석 조합원의 인사 방식이 불던 날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 집행관들이 쟁대위-대의원 연석회의가 열리는 시각에 노조 사무실을 찾은 것이다. 이들의 손엔 박 사장이 노조와 쟁대위원, 대의원 등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서류가 한달 들려 있었다.

가처분 심문이 진행되려면 피신청인들에게 관련 서류가 전달돼야 하는데, 쟁대위원과 대의원들이 법원 서류를 반송하자 법원 집행관들이 직접 노조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사전에 박 사장 측이 이 시각에 피신청인들이 다 모이는 회의가 열린다는 정보를 법원에 알려주지 않았으면 일어나기 어려운 타이밍이었다.

법원 집행관들이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재차 노조 사무실을 찾을 때엔 사측이 이들을 노조 사무실로 안내하기까지 했다.

최근 있었던 양정우 조합원의 보복성 소환 인사는 이중 단연 '백미'다.

노사간 밀도있는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파업에 참여 중인 평조합원에 사실상의 징계를 내려 박 사장의 예의 이중적 행태를 다시 보였다.

공병설 노조 위원장은 "이것이 연합뉴스란 조직을 이끌어왔다는, 그리고 앞으로 몇년간 더 이끌어고 하는 무리한 욕심을 내는 박 사장의 모습"이라며 "그런 욕심에 의해서 연합뉴스가, 우리가 사랑하는 연합뉴스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박 사장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